車 보험료 내달 인상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5일 월요일 제331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일>

코스피 1969.68 (-9.64)

코스닥 686.42 (+1.63)

금리(국고채 3년) 1.58 (-0.02)

환율(원·달러) 1183.00 (+6.00)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1~7일) 유커 21만명이 방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첫 주말인 4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관광객과 시민들이 뒤섞여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유커의 힘! 역세상권 '황금알'

홍대·합정·명동·이태원 역 등 외국인 몰리며 '주7일 상권' 형성

홍대역 상권 임대료 1년새 43% 껑충
경리단길 인기·면세점 입점 기대
용산역·이태원역 상권도 35%↑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평균 43%를 웃돌았다.

경리단 길 인기에 힘입은 용산 인근 이태원역 상권 임대료 역시 1년 전보다 평균 35% 가량 상승했다. 이태원 대로변 상가 1층 66㎡ 점포는 보증금 5000만~1억원에 월세 3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의 전언이다. <관련기사 3면>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 신사역 일대 임대료도 평균 인상률이 34%를 넘어섰다.

이에 수혜지역 수익형부동산 상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대 일대에서는 지하철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직접 연결되는 복합상가 '딜라이트 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딜라이트 스퀘어는 4만5620㎡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186개 점포로 구성되며 이 중 1차분 71실이 분양된다. 단지에서 반경 2㎞ 이내에 지하철 2·6·9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가 지나며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꼽히는 연남·망원동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91번지 일대 용산역사 전면에 시공중인 '용산 푸르지오써밋' 주상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용산푸르지오 써밋 스퀘어 조감도.

139개 점포(보류지 포함)다. 조합원 물량 19개, 보류지 2개 점포를 제외한 118개 점포(예정)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1·4호선과 경춘선(ITX), 경의중앙선, KTX 복합역사인 용산역 역세권에 있는 데다 한강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한 강남이나 도심권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바로 뒤 아이파크몰에 HDC 신라면세점이 12월 오픈 예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 힘입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대기업 이전과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대규모 공원 조성, 국제관광호텔 착공, 의료복합시설 건립 등 주변 개발호재도 많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오피스 타워 '마곡 더랜드파크(가칭)'도 신규 공급된다.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C블록에 있는 이 타워는 3층 건물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상업시설은 1~3층 193실로 구성된다.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에 들어설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시설과 같은 축으로 연결선상에 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아 외국바이어 등의 방문에 유리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초 힐스테이트서리풀' 상가를 분양 중이다. 유럽풍의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이 상가는 연면적 4만8424㎡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 39개 점포가 분양된다. 힐스테이트서리풀 아파트(116가구) 입주민을 고정 수요로 확보하고 있으며 상주 인구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오피스빌딩인 마제스타시티도 인접해 있다. 상가 지하 1층에는 롯데마트 입점이 확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많이 몰리는 곳은 투자수익률이 높아 주 7일 상권을 형성한다"며 "이런 점 때문에 점포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투자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패블릿 가을대전 관전포인트

삼성-무선충전 LG-광각렌즈 애플-3D 터치

갤노트5, LG V10, 아이폰6S+ 기술집약 특화기능 마케팅 총력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프리미엄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다. 특히 각사는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하며 양보 없는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5'에 이어 LG전자의 'LG V10', 애플의 '아이폰6S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5는 지난 8월 20일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리서치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갤럭시노트5는 9월 3주까지 5주연속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이런 가운데 갤럭시노트5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와 '무선충전' 기능이 흥행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방식과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삼성페이는 출시 한 달여 만에 등록카드 수 50만장을 넘기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무선충전 기능도 호평을 받고 있다. 갤럭시노트5는 무선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다.

오는 8일 출시되는 LG V10은 이형디스플레이와 카메라와 음향이 특징이다.

LG V10의 디스플레이는 실제 한 장이지만 5.7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세컨드 스크린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두 개의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LG V10에는 전면에 각각 120도와 80도의 화각을 지닌 두 개의 5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를 탑재했다. 120도 광각 카메라는 같은 거리에서 더 넓은 영역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셀카봉이 없어도 7~8명의 인원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고성능 전문 오디오 칩셋도 탑재했다. 원음에 가깝게 재생되는 32비트 하이파이 DAC(Digital to Analog Convertor)을 내장해 전문 디지털 오디오의 성능을 제공한다. 음량조절을 75단계까지 확대해 미세 조절도 가능하다.

이달말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6S플러스는 새로운 터치를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이폰6S플러스의 '3D 터치'는 화면을 터치하는 압력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포스터치를 활용한 기술이다. 3D 터치는 화면을 가볍게 누르면 사진, 이메일 등의 콘텐츠를 간단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더 깊게 누르면 원하는 콘텐츠를 띄워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조한진 기자 hjc@

There is no place for Kim Moo-sung to move back

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Uneasy cohabit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Kim Moo-seung, the Saenuri Party Chairman Rep, is showing signs of catastrophe.

Kim Moo-sung who's been backing the president so far is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war regarding the candidate nomination, but the pro president part of the party are not agreeing with Kim.

Even a rumor saying that Ban Gi-Moon would be nominated as a candidate came out from a key member of pro park faction.

If Kim yield the right to name party candidates, he will lose the leadership and his position as a president candidate might be weaken. There is no place for Kim to step back.

Kim, who said that he would not just sit back from tomorrow about the criticism that were drawn to open primary system, has boycotted all his schedules to express his discomfort.

He also sent Blue house all th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contents of agreement that was created in a meeting with Moon Jae in.

However, he drew a veil over who he contacted in Blue house. He made an excuse for the boycott saying that he has a flu. It seems that he has an intention to control the situation by avoiding expansion of the nomination war and sending them a warning message saying 'Do not touch me.'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불안한 동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온 김 대표는 이번 공천권 전쟁에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물밑에서만 떠돌던 '반기문 친박 대선주자론'이 친박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선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날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공개비판에 대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30일 예정된 정치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에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당시 사전에 회동 사실은 물론이고 합의 내용까지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도 감기 탓을 했다. 확전을 피하고,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새누리당**이 5일 공천특별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천특별기구의 역할과 인선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에서 구호활동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 건물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다. 유엔은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외곽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늘어났고, 여전히 350명이 생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동부의 일부 해안지역에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리건주 총기난사사건으로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정신병자 수용소를 늘리면 된다며 총기소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사회

▲ 4일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 윤수경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최근 제출한 '대학·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따르면 예체능계 대학 진학자는 인문·사회계 진학자보다 원하는 대학·전공을 선택해 진학한 경우가 3.1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 35만8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1만50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7.6% 증가했다.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981년 설치된 흑석2치안센터 보도육교(현충로 142)를 오는 9~10일 철거한다고 1일 밝혔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길로 변한 '추억의 옛 경춘선'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역 주차장에서 열린 '경춘선 자전거길 개통식'에서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춘선 자전거길은 경춘선을 복선 전철화하면서 버려진 옛 경춘선 철길을 자전거길로 탈바꿈한 것으로, 총연장 91㎞로 조성된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LG전자 V10, 애플 아이폰 6S플러스 등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이 최근 잇달아 출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프리미엄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사는 차별화된 기능을 각각 탑재하며 양보 없는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 **LG전자**가 최근 '넥서스 5X'와 'LG V10'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벗어날 전망이다. V10은 한국과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췄고 넥서스5X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위기타개를 위해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지 82일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업계와 증권가에서는 경영쇄신안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조작 파문에 이어 삼성전자가 TV 에너지효율을 조작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포천과 포브스가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수혜가 명동과 백화점 등 일부 상권에 쏠리고 있다. 참여업체의 98%에 달하는 편의점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할인품목도 일부에 한정되고 할인율도 천차만별인데다 할인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등 레임덕 해결책으로 나온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농협계열사**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의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당국**이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의 편법적 꺾기 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까지 꺾기 규제에 들어간다.

대부분 이월 상품·실제 할인률도 절반 못미쳐

르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가보니…

명동·백화점만 북적
할인률 천차만별에
일부 품목만 할인돼
소비자 반응 시큰둥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대하고 왔는데 세일하는 제품보다 세일 안하는 제품이 더 많았고 그나마 할인폭도 20% 수준에 불과하네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첫 주말인 지난 3일 오후, 명동 등 주요 상권에 내국인은 물론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관광객 인파가 몰렸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롯데백화점 소공점을 방문한 레이첼(여·42)씨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대하고 왔는데 세일하는 제품보다 세일 안하는 제품이 더 많았고 그나마 할인폭도 20%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냉장고를 2대 사면 50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누가 한번에 냉장고 두대를 사겠느냐"며 "3만원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면 5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고 시큰둥해 했다.

또 다른 방문객인 서경애(여·37)씨는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곳이나 정기세일을 하는 매장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가보면 실제 구입할만한 물건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기자가 찾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소공점, AK플라자 구로본점은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평일 오전과 다를 바 없이 한산했다. 매장 곳곳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최대 80%'라는 할인율은 찾기 어려웠다.

행사 품목은 주로 의류에 국한됐고 할인율은 10~30%가 가장 많았다.이 마저도 일부 품목에 한정됐다. 50~70%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월 상품들이었다. 아웃도어와 모피 등 일부 품목 매장은 전혀 세일을 하지 않아 방문객의 발길이 아예 끊긴 곳도 있었다. 정기세일이나 특별세일이 진행되는 생활용품 코너에만 방문객들이 바글바글거렸다.

아웃도어 매장의 한 직원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특별 세일을 적용하고 있진 않다"며 "이를 오해하고 온 손님이 몇 몇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한 블랙프라이데이는 첫날인 1일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듯 했다.첫날 기대감이 무너진 탓이다.

레이첼씨는 "미국의 경우에는 추수 감사절이 지나고 소비가 촉진되는 시기를 맞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열고 최대 90%까지 할인을 진행한다"며 "한국은 추수 감사절이라는 게 없고 추석 명절 직후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 진행하는 탓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4일째이자 첫 휴일인 4일 오후 서울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의 대표적인 건어물도매 전통시장인 신중부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황 극복을 위해 꺼내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와 소비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매출이 올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최대 80%의 할인률이라는 당초 내용과는 달리 실제 할인율은 절반 이하였고 이월·재고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며 냉랭한 반응이다.

또 전국 2만6000여 개 점포에서 세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혜는 명동과 백화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주요 상권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중국 국경절인 10월 1~7일 연휴를 맞아 대거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효과가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소공동 본점의 1~2일 유커 매출(은련카드 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나 증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6~7월 유커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1%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반전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백화점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년 대비 약 20%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23.6%, 현대백화점은 27.6%, AK플라자는 13% 매출이 늘었다.

소비자들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행사를 기획한 정부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인율이나 할인품목 등을 강제한다면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각 업체에서 제품 할인에 대한 차별화를 약속한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

'내수 진작' 명분 내세웠지만… 졸속 추진에 곳곳 혼선

블랙프라이데이 개선점은?

정부 급속추진에 불만 높아
찍힐까 참여 마케팅비만 ↑

지난 3일 오후 롯데마트 잠실점 식료품 매장. 매장엔 장을 보는 고객들이 위주였고 특별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문에 방문한 고객은 드물었다.

의류매장엔 고객들이 식료품 매장보다 많았지만 행사상품 진열대만 조금 몰린 모습이다. 한 점원은 평소보다 10~20% 고객들이 많다고 귀뜸했다.

비슷한 시각 홈플러스 남현점. 이곳도 평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전자제품 코너만 그나마 붐볐다. 이어 찾은 이마트 여의도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하고 있는 2만6000여 점포 중 98%(2만5400개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

관악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GS25에 한 시간 넘게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상품을 찾는 고객을 기다렸지만 블랙프라이데이를 언급하는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담배와 인스턴트 식품만 집어갈 뿐 이었다. 종로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 몇곳을 더 둘러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달 말까지 식료품할인과 덤증정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례적인 편의점 행사와 구분하기도 힘들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블랙프라이데이요? 그냥 매달 하는 행사 하는 줄 알았는데요. 고객들도 편의점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 "첫날인 1일에는 비가 와서 손님이 평소보다 10% 이상 적은 편이었다. 그마저도 라면, 담배, 인스턴트 식품 손님이다. 내수진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내수 진작'을 외치며 야심차게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백화점 등 일부 상권을 제외한 곳의 체감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특히 참여업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편의점 업계에선 이렇다할 효과없이 마케팅 비용만 늘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일이라 참여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급하게 시작한 행사라 기업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납품업체와 기업의 마케팅 비용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작일인 10월 1일 매출은 전년 동기 동요일 대비 평균 2~7% 신장하는 데 그쳤다.주요 신장품목은 의류, 전자제품이다. 편의점 3사의 같은 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4% 감소했다.

업계관계자는 "준비없는 대형 행사가 기업과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정부에 찍히기 싫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매출 상승률 대비 마진률이 너무 낮아 오히려 손해만 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할인행사만 하면 무서워 죽겠다. 매번 행사 때마다 0원의 마진으로 납품한다. 내수진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 직원들의 내수경제는 확실히 죽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갑작스러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 부담 조정이 급하게 이뤄지며 일부 업체들이 본사의 행사품목 마케팅 비용을 전부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찍어내기 분위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정부의 레임덕 해결책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을 포착했으며 기대치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도 인지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어떤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내년에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실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로또복권 제67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1	18	26	27	40	41	2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191,725,219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1,114,114
3등	5개 숫자 일치	1,111,16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새누리 공천전쟁 2라운드

공천특별기구 출범 앞두고 '전운'

친박, 오픈프라이머리 공격 전망
당내선 '언론의 확대 해석' 경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투표등록 대토론회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언론은 청와대와의 공천전쟁을 부추기는 측근들의 문자메시지를 포착했다. 김 대표가 언론에 의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흘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우연을 가장한 정치공세라는 분석이다. /뉴시스

5일 예정된 새누리당의 공천특별기구 출범을 하루 앞두고 친박근혜(친박)계와 비박근혜(비박)계 사이의 공천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요란하다. 1라운드가 청와대의 안심번호(오픈프라이머리의 방법론) 비판이었다면 2라운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 거라는 전망이다. 1라운드는 김 대표가 직접 청와대측에 휴전을 제의해 소강상태를 맞았다. 2라운드는 어떨까. 친박계를 전위로 앞세운 청와대는 세간의 예측대로 전략공천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장을 보려할까.

4일 이 같은 질문에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 관철 운운은 언론이 흥미거리 삼아 지나치게 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누구누구가 대구 지역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대구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벌써 공천문제를 본격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완구 전 총리가 원내대표로 나설 때 박 대통령은 보름전에야 오케이했다. 박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청와대나 친박의 어느 누가 감히 출마를 운운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관철시키려한다는 관측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 보장을 위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나설 거라는 설이다. 때마침 박 대통령에게 찍혀나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도 한몫했다. 청와대로서는 대구지역에서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를 대상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인물 경쟁력이 뒤지는 청와대 비서관들로서는 전략공천이 절실할 거라는 게 떠도는 설의 골자다.

이 같은 설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7일 박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출신의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대동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이들에 대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대구를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내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각각 청와대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 비서관 정도만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출마 문제가 본격화되기에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나치게 시기상조이다. 굳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김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이유를 따지자면 전략공천에 대한 여론을 떠보자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김 대표가 원하는 대로 총선 문제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정원 '남북비화 공개' 김만복 고발키로

회고록서 남북 핫라인 밝혀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사진)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최근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 비사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라도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국정원 측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남북간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다운 말을 해야한다.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비밀정보기관 수장이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회고록을 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북정보공작 책임자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에도 언론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선 국정원 직원을 대동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2008년에는 방북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했다. 대화록에는 그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은 교체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로 인해 결국 국정원장에서 물러났다.

또 퇴임후인 2011년에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간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 등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고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공천심사위원장 놓고 주류 vs 비주류 힘겨루기

조은 교수 내정… 비주류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 교수는 2012년 친노무현(친노)계인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4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장을 빠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내일 위원장이 선임된다면 다음 주안에 위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 교수가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전 의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복수의 의원들이 조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위원을 천거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평가위는 여론조사, 의정활동 등 5개 기준에 따라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평가위가 현역의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셈이다.

이로 인해 비주류는 조 교수가 친노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원장의 성향상 평가위가 친노에 편중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전에 공심위원을 했던 분이 또다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적절해보이지는 않는다. 2012년 공천이 썩 호평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北 지뢰도발 논란 중 골프

이순진(사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 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중이던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총 14회에 걸쳐 군골프장을 이용했다.

특히 DMZ 목함지뢰사건이 북한 소행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8월 9일에도 제2작전사령부 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중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분이 지뢰도발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당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해야 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병형 기자

류중일 감독

지난 3일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삼성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마운드에 모여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통·배려 류중일의 '형님 리더십' 꽃피다

류중일 감독 "모두가 노력한 결과"
한국시리즈까지 통합 5연패 노려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삼성은 지난 3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같은 날 2위 NC 다이노스가 SK 와이번스에 3-4로 패하면서 삼성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업적의 중심에는 류중일(53) 감독이 있다. 1987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로 입단한 류 감독은 이후 코치를 거쳐 감독까지 맡으며 삼성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내년이면 '30년 삼성 맨'이 되는 류 감독의 강점은 바로 '삼성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삼성의 지휘봉을 잡은 류중일 감독은 그해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어내며 '삼성의 시대'의 막을 올렸다. 당시 류중일 감독은 통합 우승 이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삼성 야구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최강의 실력으로 우승을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현실이 됐다. 2013년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의 기록을 세운데 이어 그 기록을 5년으로 이어갔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라는 위업도 세웠다.

류중일 감독의 리더십은 '형님 리더십'으로 불린다. 류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소통이다. 선수들과도 격없이 대화를 나누며 코칭스태프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웬만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선수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4일 삼성 구단이 공개한 류중일 감독과의 일문일답에서도 '형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류 감독은 일문일답을 통해 5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의 공을 선수단 전체 업적으로 돌렸다. 그는 "특정 선수보다 선수단 전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팀을 먼저 생각했다. 다만 부상한 채태인·박석민·박한이·이승엽의 공백을 메워준 구자욱의 공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류 감독은 스스로 생각하는 야구의 색깔로 "최대한 선수를 믿고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2군에 내려 보내는 것보다 선수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결국 팀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의 진짜 활약은 이제부터다.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어 통합 5연패를 노린다. 야구 팬의 관심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5연패 팀이 나오게 될지에 몰려있다.

류중일 감독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남아있는 한국시리즈 7차례의 경기 중 4번만 이기면 우리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며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해야 할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절반의 성공, 김성근의 '아버지 리더십'

김성근 감독

한화 이글스 선수들. /연합뉴스

감독 부임 이후 끈질긴 팀 변신
"감독 잘못으로 패한 경기 많아"

김성근 감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노렸던 한화 이글스가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정규 시즌을 아쉽게 마쳤다.

한화는 지난 3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1-4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한화는 포스트시즌 탈락을 확정했다.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쳤으나 끝내 가슴 아픈 결과를 얻고 말았다.

그러나 올해 한화의 활약은 '절반의 성공과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일단 3년 연속 최하위였던 팀이 올해는 마지막까지 끈기를 놓지 않는 팀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성공으로 손꼽힌다. 올해 한화는 68승 76패에 승률 0.472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5위·64승 62패, 승률 0.508)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흥행 성적만 놓고 봐도 한화의 성공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홈 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올해 열린 72경기에 모인 관중은 총 65만7358명이다. 한화 구단 역대 최다 관중으로 지난해보다 38%나 늘어난 수치다. 한화가 2015 KBO리그 흥행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화가 이렇게 부상할 수 있었던 데는 김성근 감독의 역할이 컸다. 김성근 감독은 '아버지 리더십'이라는 말에 걸맞은 악착같은 야구로 한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한화는 전반기에 5위에 오르며 가을야구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후반기 접어들어 한화의 급추락은 시작됐다. 특히 권혁(78경기 112이닝), 박정진(76경기 96이닝), 송창식(64경기 109이닝)에게 집중된 불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근 감독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다. 얇은 선수층에 포스트시즌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쓴 고육책은 후반기에 통하지 않았다. 결국 한화는 후반기에 24승 36패를 기록했다. 후반기 승률 10위였다.

김성근 감독은 올 시즌 한화가 올린 성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김 감독은 "감독의 잘못으로 패한 경기가 많다.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올 시즌을 평가했다. 또한 "한화는 더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며 2016년 시즌을 향한 각오를 드러냈다.

/장병호 기자

강서 먹자골목 변신… 경찰·주민 유흥가 정화

환경 개선에 범죄 감소 성매매 근절 힘쓰기로

"깨끗한 거리환경은 범죄도 줄입니다."

성매매 전단과 불법 광고물이 거리를 덮어 어수선했던 서울의 한 유흥가가 경찰과 지역 주민이 합심해 환경을 개선하면서 범죄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유해 환경이 범죄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한 환경 개선 사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6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인도 곳곳을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가로막고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길바닥은 성매매 전단으로 뒤덮였다.

이곳에는 유흥주점과 모텔, 노래연습장이 많아 음주 소란은 물론 폭력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았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시민의 준법의식이 흐려져 범죄가 증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 올해 2월부터 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3~4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 72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 전단 살포자를 단속했다.

6월부터는 지역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돕고 나섰다.

경찰이 인근 140개 업소의 모임인 '화곡6동 상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을 경찰서로 초청해 협조를 요청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때마침 터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장사가 신통치 않아 홍보에 목말랐던 상인회였지만, 경쟁 업소끼리 전단 배포나 호객 행위를 자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경찰서 최수선 생활질서계장은 "더러운 주변 환경이 범죄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환경 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자 상인회도 그 뜻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전단을 뿌리며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는 경찰과 상인회가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어느덧 불법 전단이 길거리에 가득 차 지저분하던 먹자골목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끔해졌다.

범죄도 줄어들었다. 올해 5~9월 먹자골목 일대 폭력 범죄는 전년 동기(126건) 대비 9.5% 감소한 11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경범죄는 더 감소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화곡지구대의 음주 소란·무전취식·무임승차·쓰레기투기(담배꽁초) 등에 대한 경범죄 통고처분 처리 건수는 올해 5~9월 40건이었다. 전년 동기 103건에 비해 61% 감소한 것이다.

상인연합회 지용식(59) 회장은 "점차 거리가 깨끗해지면서 상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범죄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참에 성매매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배성국 생활안전과장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건물주와 업소를 연결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입건해 처벌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성매매 업소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고 업소의 임대 보증금을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여친은 망보고 남친은 훔치고'

'소매치기' 40대 연인 구속

혼잡한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던 4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퇴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칼로 가방을 찢거나 손으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내는 방식으로 소매치기를 한 강모(4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옆에 바짝 붙어 망을 봐 준 연인 김모(44·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께부터 21일께까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9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소매치기 대상에 접근했다. 지갑을 훔친 뒤에도 모른 사람인 척 흩어졌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만났다.

또 훔친 지갑에서 현금만을 꺼내고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한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 버려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년 전에 알게된 사이로, 지난달 우연히 다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난달 초부터 강씨가 지내던 여관에서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해 소매치기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잡한 환승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에서 가방을 가지고 있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준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야외무대 해운대 북적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4일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참여하는 야외무대와 다양한 행사가 열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비프빌리지에 관광객과 영화팬들이 몰려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육교 34년 만에 철거

서울 동작구 흑석2치안센터 앞 육교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981년 설치된 흑석2치안센터 보도육교(현충로 142)를 이달 9~10일 철거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육교는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주로 이용했지만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이용이 어려워 철거 민원이 많았다.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비도 매년 2천만원 소요됐다.

동작구는 지난해 지역 주민과 주변 상인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91%인 834명이 철거에 찬성했다.

동작구는 철거에 앞서 지난달 20일 육교 인근 50m 거리에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육교 통행은 7일부터 금지된다. 철거 작업 기간인 9일 오후 9시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현충로 131길에서 한강현대아파트 정문까지 200m 도로가 부분 통제된다.

이학구 동작구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렵고 안전과 도시미관 등 문제가 있는 보도육교는 계속 철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프로 축구선수도 당한 '중고차 삼각 사기'

판매자·구매자 사이서 판매대금만 가로채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인천유나이티드FC 소속 한 선수가 중고차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축구선수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상대방인 차량 딜러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양측 모두 '중고차 삼각 사기' 피해자로 보고 있다.

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A(28)씨는 "차량 사기를 당했다"며 인천유나이티드FC 소속 축구선수 B(28)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 입구에서 B씨와 만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넘겨받기로 했다"며 "차량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를 쓰고 5900만원을 입금했는데 차량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B씨의 지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했으며 당일 차량 소유주 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대금을 입금한 이후 B씨가 자신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도 차량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차량 소유주 이전까지 해줬는데도 중고차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맞섰다.

A씨는 결국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경찰에서 "차량을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6500만원에 사겠다고 연락했다"며 "돈을 주지 않아 차량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지난 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일명 '삼각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달 초 중고차 사기 혐의로 총 전과 84범의 30대 남성 2명을 붙잡은 바 있다. 이들도 실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를 만나게 한 뒤 차량이 매매된 직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차량 대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로부터 차량 대금을 건네 받은 인물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유선준 기자

“국가근로장학금 받기 어렵네”

8월기준 선정률 13.6%
신청자 늘어 매년 하락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선정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4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905억원에서 지난해 1745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가근로장학생 선정률은 2009년 83.0%에서 2011년 47.5%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2.3%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신청인원 33만8555명 중 4만6170명이 뽑혀 선정률은 13.6%에 그쳤다.

선정률 하락은 신청인원의 증가에 비해 선발인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2009년 5만1906명에서 지난해 8만6218명으로 3면여명 늘어났지만, 신청인원은 같은 기간 6만2500명에서 38만7424명으로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급증한 원인으로 시급 인상과 지원 규모 확대, 전공·취업과 연계한 근로기회 제공, 홍보에 따른 사업 인지도 향상 등을 꼽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올해 교내가 8000원, 교외가 950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많다. 또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업과 근로의 병행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교외근로장학금은 대학의 자율적 투자로 바뀌었고 교내 근로장학금은 대학이 시급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학들은 국가근로장학금에 집중하면 다른 장학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선정률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주요 거점도시에 설치된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센터를 통해 장학금 지급 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충암 중·고교 급식비리 적발

서울교육청, 교장·행정실장 등 경찰에 고발

서울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거액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 용역업체 직원 등 18명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감사에 들어가 최근까지 급식운영 전반에 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 충암 중·고교는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학교가 채용한 조리원에게 급식 배송을 맡기는 등의 수법으로 급식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충암중·고교는 최소 2억5700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식용유는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도 횡령했다.

급식회계 부정 운용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등이 빼돌린 액수는 4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충암중·고교는 교육청의 급식 위생평가에서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에도 급식만족도 조사 뒤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급식기호도 조사는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는 등 급식을 총체적으로 부실운영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중·고교 공동 행정실장을 맡아 회계 부정에 관여한 L씨 등에 대한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은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가 적발돼 교육청이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육청은 비리가 반복 적발된 충암학원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조만간 특별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녹지로 변신한 연세대 백양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 연세대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추진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 공간은 녹지로 조성하고, 지하에 차량 이동로와 주차공간, 교육·문화공간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대표에 벌금형

손 전 대표 벌금 350만원 확정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근로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이모씨 등의 퇴직금 총 2520여만원을 이들과 지급을 연장한다는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대표는 이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씨 등과 같은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 등이 맡은 과목이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해당 수업이 학원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한 업무인 점 ▲학원 측이 이씨 등에게 강의할 (학원)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고 지각과 결강 여부를 체크한 점 ▲수강생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근무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된 점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대표가 주장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이씨 등과 관련해 질의한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과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유선준 기자

자폐증 연관 ‘취약 X증후군’ 치료 길 열었다

김동욱 연세대 의대 연구팀
유전성 정신지체 질환 교정 성공

가장 흔한 유전성 정신지체 질환으로 자폐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취약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

김동욱 연세대 의대 연구팀은 취약 X 증후군 환자에게서 세포를 채취해 만든 역분화 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이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유전자를 정상 작동시켰다고 4일 밝혔다.

취약 X 증후군은 FMR1이라는 유전자의 데옥시리보핵산(DNA) 부위에 CGG라는 염기서열이 200개 이상으로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CGG 서열의 반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FMR1 유전자가 불활성화하면서 작동을 멈춰 이 질환이 발생한다. 정상인의 CGG 반복서열은 55개 이하다.

취약 X 증후군은 남성 3천6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남성 정신지체 환자 가운데 약 6%, 자폐증의 5%가량을 차지한다. 환자의 30~50%는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본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 유전체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 취약 X 증후군 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반복 CGG 염기서열을 제거했다.

반복 염기서열이 사라지자 FMR1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프로모터' 부분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pG섬'(CpG island)이 활성화(탈메틸화)해 유전자가 다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취약 X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을 유전자에서 제거했을 뿐 아니라 해당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며 향후 이 질환의 치료법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취약 X 증후군의 CGG 서열과 같은 반복서열의 유전자 교정은 매우 어려운 연구로 이 질병에서는 세계 최초의 성과”라며 “환자의 FMR1 유전자에서 반복되는 CGG 서열을 제거함으로써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이 재활성화해 결국 유전자를 재발현시킨다는 원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 '셀 리포트'(Cell Reports) 온라인판에 이달 2일 실렸다.

/유선준 기자

포스코, 아직 미완의 개혁… 영업익 20%↓

권오준 회장, 경영쇄신 이후 첫 실적 발표
외화 환산손실·소송 합의금 등 변수 더해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위기타개를 위해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지 82일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쇄신안을 내놓은 7월 본사·제철소의 부서 축소,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조2391억원의 자금도 확보했다. 산업계와 증권가에서는 경영쇄신안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 회장이 발표한 5대 경영쇄신안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성 △의사결정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구현 △거래관행의 개선 △윤리경영 등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을 704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8787억원) 대비 19.8% 감소한 수치다. 유진투자증권은 영업이익을 7195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수치다.

증권업계가 내놓은 포스코 3분기 경영실적은 업황 불황, 원화 약세로 인한 손실, 신일본제철 소송 합의금 3000억원, 포스코플랜텍 대손충당금 1000억원 등의 변수가 더해져 산출됐다. 남광훈 교보증권 연구원은 "외화 환산손실과 신일본제철 소송 합의금 등 일회성 비용이 3분기에 대거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순이익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쇄신안이 빛을 발휘하기 힘들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 회장이 내놓은 쇄신안은 2017년까지 철강 본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계열사 50% 축소, 해외 사업 30% 축소, 경쟁조달비율을 90% 이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3분기에만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MOU(양해각서) 체결,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88개 조직 폐지 등을 시행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7월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는 쇄신안 발표 후 14일 만에 14개 부장급 조직 포함 88개 조직을 폐지하며 본격적으로 쇄신안을 실행시키고 변화를 주도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철강 본원 경쟁력과 직결된 제철소 조업부서와 연구개발(R&D) 조직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포스코플랜텍이 발목을 붙잡으면서 경영정상화는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을 4년간 유예,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의 프로젝트 발주를 지원하되 자금 지원은 중단하는 것 등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올해 상반기 2200억원의 순손실과 자본총액 -41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 포스코는 이달부터 베트남 법인(POSCO SS VINA)으로부터 철근을 수입한다. 이를 놓고 국내 철근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10만톤 규모를 국내 시장(900만톤 규모)에 수입할 방침인데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포스코 측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 포스코 베트남 법인의 조강 생산실적이(6만9000톤) 생산능력 대비(50만톤) 부진하고 13.8% 수준의 낮은 평균가동률을 건설 부문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스코건설 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매각해 1조2391억원을 마련했다. 이는 중동을 비롯한 해외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쓰일 계획이다.

포스코의 해외사업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3분기에는 해외사업 축소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포스하이알, 포스코플랜텍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리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해외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1개다. 60여개 철강관련 해외법인 중 20개 이상의 법인이 순손실을 기록했고 순손실을 거둔 해외사업 중 조립사업 등 철강사업과 다소 무관한 사업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계열사 축소보다는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정상화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송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는 부실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영업이 정상화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현대차, 프레지던츠컵 차량 지원

2일 매트 카미엔스키 PGA투어 부사장(왼쪽)과 장재훈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전무가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의전·대회 운영용 67대 전달

현대자동차는 최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2015 프레지던츠컵'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달식에서 프레지던츠컵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제네시스 등 승용 29대 ▲싼타페 등 RV(레저차량) 6대 ▲쏠라티 등 승합차 30대 ▲버스 2대 등 총 67대를 전달했다.

현대차가 제공하는 차량들은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골퍼와 대회 관계자들의 의전과 대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프레지던츠컵은 1994년 미국 PGA 투어 주도로 설립 됐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미국팀 대 인터내셔널팀의 골프대항전으로 개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예의장을 맡는 특징이 있다.

이번 프레지던츠컵은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

현대차 측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에 공식 차량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폴크스바겐 불똥에 수입차 재고 연말 8만대

작년비해 72.8%나 급증
소송문의도 500건 넘어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수입차 판매감소와 집단 소송 등의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에 따른 수입차 인식 악화로 수입차 재고 물량이 5만5000여대에 달해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에 싸늘한 시선을 보냄에 따라 막대한 재고를 처리할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차 재고량은 5만4781대다.

이는 전년 동기(3만1702대)에 비해 72.8%나 급증한 수치다.

아우디 A3.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수입차 재고는 8만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관련 소송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련 소송문의가 5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앞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기자

LG화학, 야마하 골프카트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6시간 충전에 36홀 연속 주행

LG화학은 2016년까지 일본 야마하 골프카트에 리튬이온배터리(사진)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되는 골프카트는 야마하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모델이다.

LG화학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5.5kWh, 74Ah 용량의 파우치 형태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크기·무게는 반으로 줄었지만 수명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2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납축전지와 달리 비용 없이 총 5년간 보증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충전 시간은 40% 단축돼 1회 충전에는 약 6시간이 소요된다. 완충 시 36홀을 연속 주행할 수 있다.

야마하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을 전 기종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은 이에 따른 추가 수주와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기 기자

"세계 제조업 붐… 한국엔 위협이자 기회"

코트라, 美·獨·中 등 세계 9개국 분석
"ICT 등 확실하게 주도권 확보해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펼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는 위협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4일 발표한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등 세계 9개국 제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 경쟁에서 선봉에 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라는 육성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이며 2016년 예산만 6억800만달러에 달한다.

독일도 2012년부터 '산업 4.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통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 4.0이 실현되면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연간 100억 유로의 경제 파급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세계 제조업의 선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첨단 제조 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성분야는 3D 프린팅, 디지털제조기술, 경량화 금속, 스마트 센서, 스마트 메모리, 사물인터넷"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조업 육성 정책 '중국 제조 2025'를 가동한 중국과 '생산력 4.0 프로젝트'를 내세운 대만 역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IT 기술, 고급 디지털제어 공장기계와 로봇, 선진 궤도 설비 등 10대 육성 산업을 선정했다. 대만은 스마트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또 인도와 모로코는 지난해에 러시아와 에콰도르는 올해 제조업 육성 정책에 뛰어들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목적은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는 핵심 제조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도 우리 제조업이 풀어야 할 숙제"라며 "세계 각국의 제조업 육성 붐은 우리 제조업에는 위협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학연 협력, 민관 연구소 간 공동 연구개발, 대중소기업 간 협업, 선진국 연구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도, 러시아, 에콰도르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와는 기술 공유, 유휴 설비 수출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삼성그룹, 세번째 웹드라마 키워드는 '도전'

삼성그룹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웹 드라마 '도전에 반하다'의 제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그룹 웹드라마 '도전에 반하다'에 출연하는 엑소 시우민과 김소은.

삼성그룹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도전에 반하다'는 각 10분 분량 총 6편의 짤막한 스토리에 주인공들의 도전을 유쾌하게 풀어냄으로써 우리 사회에 즐거운 도전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인기 그룹 엑소(EXO)의 시우민과 배우 김소은이 각각 남녀 주인공을 맡았다. 이들은 도전 동아리 '하나 더하기'의 폐쇄를 막기 위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대학생으로 출연한다. 극 중 엑소 시우민은 소심한 성격이지만 삐에로 연기자를 꿈꾸는 '나도전'역을, 김소은은 푸드 트럭 창업에 도전하는 '반하나' 역을 맡았다. 연출은 최근 '오렌지마말레이드'를 연출했던 이형민 감독이 맡았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웹드라마는 삼성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라며 "2030세대에 즐거운 도전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의 '삼성 기어S2'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다양한 워치 페이스와 전용 스트랩을 살펴보고 있다.

'기어 S2' 대규모 원형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 출시행사
다양한 워치 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등 시연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S2' 출시를 맞아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광장에서 기어 S2 출시 행사를 열었다.

이번 출시 행사는 혁신적인 원형 디자인과 휠 UX로 주목 받고 있는 '기어 S2'를 직접 체험해 보는 대규모 소비자 행사로 원형 체험존과 감각적인 미디어 파사드가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기어 S2'의 디자인과 다양한 혁신 기능을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존, 무대, 영상 등 행사 전반을 원으로 구성했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기어 S2'의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체험하고 있다.

또 메세나폴리스 광장의 원형 무대에 '기어 S2'의 원형 디자인과 휠의 움직임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성을 연계한 감각적인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다.

행사 현장을 찾은 2만 여 명의 소비자들이 다채로운 디자인의 워치 페이스와 전용 스트랩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과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 결제가 가능한 '티머니'와 '캐시비', 필드 위에서 거리 측정과 스코어 기록을 지원하는 '골프나비' 등 유용한 국내 특화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 외에도 운동량을 관리하는 'S 헬스'와 '나이키+', ATM 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멤버십 카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럽', 내비게이션 '김기사' 등 다양한 운동·생활·교통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해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출시 행사는 대규모 체험 공간에 원형 디자인과 휠 UX를 녹여내 소비자들이 마치 거대한 기어 S2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기어 S2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TV에너지 효율 조작 보도
포천·포브스 "삼성전자 불법행위 없었다"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 연비조작 파문에 이어 삼성전자가 TV 에너지효율을 조작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포천과 포브스가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천 인터넷판은 '세계의 TV 제조사들이 폭스바겐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과 폴크스바겐 사태는 다르다. 삼성을 비롯한 TV 업체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연합(EU) 출연기관인 컴플라이언TV의 미공개 실험결과를 인용해 삼성의 '모션 라이팅(motion lighting)'이 테스트 조건에서 소비전력을 낮추지만 실생활에선 절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포천은 가디언 보도에 대해 "TV 제조사도 조작된 테스트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을 과장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과다배출처럼 공공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포브스 인터넷판도 '삼성이 TV 에너지 테스트를 속였다는 주장에 반격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험과 실제 사용환경에서 소비전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삼성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모션 라이팅은 표준적인 '아웃 오브 더 박스 기술(설치 후 어떤 조정 없이 바로 실행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TV가 가정에 배달돼 전원이 연결되면 표준 모드에서 계속 작동돼 소비전력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양성운 기자

"V10·넥서스5X, LG전자 실적 구원투수 되나"

한국·북미서는 LG V10 유럽에선 넥서스5X 공략 성능 향상·트렌트 반영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LG전자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에서 공개한 'LG V10'(왼쪽)과 LG전자와 구글이 선보인 '마시멜로(Marshmallow)' 운영체제 레퍼런스폰 '넥서스5X(Nexus 5X)'.

LG전자가 최근 '넥서스 5X'와 'LG V10'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벗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저조한 경영실적으로 고전한 LG전자의 영업이익은 올 1분기 3052억원에서 2분기에는 2441억원으로 줄었다.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은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한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이다.

이에 LG전자가 올 하반기 보급형과 프리미엄 라인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한 만큼 4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성공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일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을 공개했다. 오는 8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V10에 대해 '슈퍼 프리미엄 성능'과 '가격'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LG전자의 G4에 비해 V10의 성능은 업그레이드 됐으며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 스마트폰 업계 최초로 전면 보조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이는 메인 화면이 꺼져있어도 날씨나 시간, 배터리 상태, 각종 알림 등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또 전면카메라 부분에 듀얼카메라를 설치했다. 셀카족들을 위해 광각 120도 카메라를 이용해 셀카 촬용시 더 넓은 배경과 인물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모델보다 혁신적인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가격은 79만97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같은 효과로 'LG V10'은 공개 후 국내 매체는 물론 해외 매체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 버지'와 '폰 아레나' 등 해외 매체들은 세계 최초로 '듀얼 전면 카메라'와 '세컨드 스크린'을 탑재한 LG V10의 강화된 비주얼 관련 기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 버지는 "서로 다른 시야각을 제공하는 2개의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는 당신이 셀카봉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듀얼 전면 카메라 기능을 인정했다. 세계 최초로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등의 신소재를 적용한 제품 내구성에 대해 폰 아레나는 "LG V10은 충격을 흡수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을 적용했고 이 회복력 강한 소재는 견고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평했다.

LG V10이 한국과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달 30일 공개한 넥서스5X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넥서스5X는 보안과 센서, 카메라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5.2인치 디스플레이, 후면 1230만화소 카메라(전면 500만화소), 헥사코어 64비트 스냅드래곤 808 프로세서 등의 사양을 갖추면서 가격은 보급형 수준인 379달러(약 45만원)로 판매된다.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6.0(마시멜로)을 채택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했으며 지문인식과 토큰 시스템 등을 사용해 보안을 강화했다.

그동안 LG전자 실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증권가도 이번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번에 출시한 G4는 가죽 소재를 내세워 최신 트렌드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느낌이었지만 V10은 뒤늦게나마 메탈 프레임과 지문인식, 듀얼카메라와 보조디스플레이 등 선제적 기능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LG전자 제품 중 역대 최고 사양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G4 판매 부진에 따른 공백기가 3분기까지 이어졌다면 4분기에는 V10과 넥서스5X가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G5가 출시되기 전까지 회복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갤럭시노트5, 아이폰6S 등 경쟁모델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V10의 예상판매대수는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지만 V10을 통해 LG전자가 스마트폰 전략을 확실히 확립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LG V10' 공개와 함께 LTE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첫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어베인 2nd(두 번째) 에디션'을 선보이고 삼성·애플과 경쟁에 나선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없이도 단독으로 음성으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과 블루투스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코닝사의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래스3'를 채택했으며 최고 1m 수심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도 갖췄다. 배터리는 LTE 통신 기능을 고려해 대용량(570mAh)을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 신형 투싼, 호주서 비교평가 1위

5개부문서 총점 8.5점으로

현대자동차의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신형 투싼이 호주에서 호평을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형 투싼은 호주 자동차전문지 '카 어드바이스'가 시행한 소형 SUV 비교평가에서 마쓰다 CX-5, 스바루 포레스터, 토요타 RAV-4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투싼은 동력성능, 실내공간, 신기술, 상품성, 주행·핸들링 등 5개 부문의 비교평가에서 총점 8.5점을 받았다.

마쓰다 CX-5는 8점, 스바루 포레스터는 7.5점, 토요타 RAV-4는 6점을 받았다.

이번 비교평가에서 투싼은 SUV 판매 1위를 지켜온 마쓰다 CX-5를 제쳤다.

CX-5는 호주에서 8월 1980대, 1월부터 8월까지는 1만6692대가 팔려 현지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현대차 투싼의 구형 모델(현지명 ix35)은 8월 1967대가 판매돼 마쓰다 CX-5를 13대 차이로 추격했다.

이번 비교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신형 투싼은 7월 31일 호주에 출시됐다.

8월과 9월에는 구형 모델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 측은 "4분기부터는 신형 투싼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며 "현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SUV 1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분당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KT모델들이 '올레 멤버십 Car+'를 소개하고 있다.

포인트로 차량점검하는 '올레 멤버십 카+'

KT, 주유·車보험 등 할인도

KT(회장 황창규)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주유와 세차, 정비 등 차량 관련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레 멤버십 카(Car)+'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면 GS칼텍스에서 주유·충전 시 ℓ당 10~2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연간 3~4차례 무료 세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토오아시스 전 매장에서 엔진오일과 와이퍼 교체 시 VIP 고객은 무료이며 일반 고객은 40~50% 할인된다.

차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리조트(한화리조트), 렌터카(롯데렌터카), 극장(메가박스 드라이브M)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올레닷컴(www.olleh.com)이나 올레 멤버십 앱, 올레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서 가입 가능하며 올레 멤버십 VIP 고객의 경우 3만점, 일반 고객은 1만5000점 포인트 차감 후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계열사 늘어난 농협이사회, 관료 출신 대거 포진

김우남 농수산위원장 국감자료
금감원·검찰 등 14명 이사 재직
전문성 갖춘 인사에 문호 개방해야

농협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이다.

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고 전홍렬, 손상호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사외이사까지 더하면 농협 금융지주의 이사 7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으로, 이사회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 연봉은 3억4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또 농협은행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가운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한백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국장, 강상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문창모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김국현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 출신이다.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의 기본 연봉은 1억87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기본 연봉 1억5000만원(최고 성과급 120%)을 받는 농협생명의 강길만 상근감사위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출신이고, 문창현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관료출신 농협 금융계열사 이사 현황(농협중앙회 제출 자료)>

회사명	직책	성명	선임일	경력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용환	'15.04.29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외이사	김준규	'14.04.01	대검찰청 검찰총장
	사외이사	전홍렬	'15.02.16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외이사	손상호	'14.04.0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한백현	'14.04.01	금융감독원 국장
	사외이사	강상백	'14.04.0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외이사	문창모	'14.04.01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사외이사	김국현	'14.04.01	행정자치부 의정관
농협생명	상근감사위원	강길만	'14.04.01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사외이사	문창현	'14.04.01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농협손해	사외이사	제정무	'13.06.1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상근감사위원	한정수	'15.04.01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
NH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백복수	'14.12.31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농협선물	사외이사	최영삼	'14.03.30	국정원 대구지부장

농협손해도 제정무 사외이사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냈고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의 한정수 전 지방건설감사단장이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도 감사원 출신인 백복수 전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이다.

농협선물의 최영삼 사외이사는 국정원 대구지부장 출신의 변호사다.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는 농협중앙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NH저축은행 이사 4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고 농협선물의 이사 4명 중 3명 역시 농협중앙회를 거친 인사들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출신의 인사들은 금융관련 계열사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지도부분 계열사에도 두루 포진하고 있다.

특히 29개 농협 계열사의 대표자 30명(경제지주는 2명 공동대표) 중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27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상근감사 13명 중 5명이 중앙회를 거쳤고, 전무이사는 12명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전체 대표자·상임감사·전무 등 상임임원 55명 가운데 중앙회 출신이 47명으로 그 비중이 무려 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1~2대 중앙회장을 지냈고 금품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호선,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도 관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고문으로 위촉됐고, 원철희 전 회장은 올해 2월부터 농협유통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월 500만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로 계열사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 정부와 중앙회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 차고 있다"며 "농협개혁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인사들에게 농협의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이체효력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시행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차기태 기자

KB금융 '동호회 올림픽' 윤종규 회장(2번째 줄 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3일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KB금융그룹 동호회 올림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제공

금감원 Q&A

'이벤트 당첨' 무료체험 빙자 사기주의보

Q. 얼마 전 설문지를 작성해주면 VIP 무료체험으로 950만원에 달하는 헬스기구를 매월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까요?

A.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지급,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몇 달 후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채무만 떠안게 됐다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본 계약서(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경우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먼저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김보배기자 bobae@

자동차보험료, 내달 4~8% 오른다

손해보험사, 금융당국·여론에 눈칫밥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평균 8.8% 올리기로 하고 그로부터 1~2개월 후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도 이달 1일부터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4.3% 올렸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도 평균 5.9% 인상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서민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업계 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2012년 75.2%에서 2013년 78.2%, 지난해 80.1%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업계에서 영업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 수준이다.

실제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을 웃돌면서 업계의 영업 수지 적자는 2012년 6432억에서 늘어나 지난해 1조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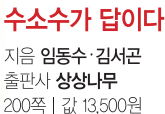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자동차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량 고객을 끌어와 손해율을 낮춰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타사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 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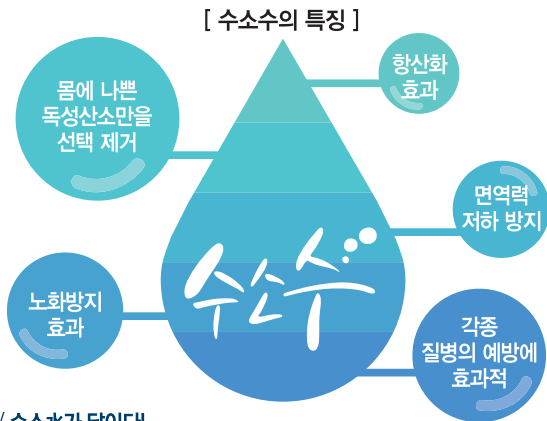
독성산소가 근본원인인 대표적 질환

뇌신경계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병, 간질, 자율신경장애 등
안과계 백내장, 망막변성증 등
혈액계 백혈병, 패혈증, 고지혈증 등
순환기/호흡기계 심근경색, 동맥경화, 폐렴, 협심증 등
소화기계 위염, 위궤양, 위암, 간경변, 클론병(국한성장염), 췌장염 등
내분비계 당뇨병, 부신(副腎), 대사장해 등
피부계 아토피성피부염, 광선과민증, 일광(日光)피부염, 등
종양계 흡연에 의한 암, 화학발암, 방사선장해 등
결합조직계 관절류마티즘, 교원병, 자기면역질환

독성산소는 세포안 DNA를 공격한다

독성산소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다

[수소수의 특징]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Part 1. 기적의 물
01 프랑스 루르드 샘물
02 독일 노르데나우 물
03 멕시코 트라코테 물
04 인도 나다나의 신비의 우물
05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Part 2. 노화와 질병은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01 노화는 왜 일어나는가?
02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
03 세포가 녹슬면(산화되면) 늙고 병든다
세포가 산화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이다
04 활성산소란?
05 독성산소와 질병
질병의 90%는 독성산소로 인한 면역체계의 파괴가 원인이다 / 독성산소는 산소독이다
06 성인병(생활습관병)과 독성산소
사망 원인 1, 2, 3위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다
07 성인병(생활습관병)의 원인 독성산소
08 과산화지질의 맹독성
독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과산화지질은 노화, 암, 치매, 피부질환의 근원이다
Part 3. 수소는 독성산소를 제거한다
01 항산화제
02 항산화제로서의 수소수(水素水)
• 수소수란? : 수소수란 수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물이다
• 왜 물인가? : 물은 생명 유지에 근본이며, 세포 속 까지 영양과 물질을 전달한다
• 수소수와 독성산소 : 산화에 대항하는 최고의 수단은 강력한 환원력을 가진 수소수다
Part 4. 최고의 천연 항산화제, 수소수
01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소수
02 뇌와 인체 구석구석까지 씻어내는 수소수
03 세포속 미토콘드리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소수
04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제, 수소수
05 몸에 쌓이지 않는 항산화제, 수소수
Part 5. 수소수의 효과
01 당뇨병
02 고혈압과 동맥경화
03 암
04 피부미용 : 아토피, 기미, 주름, 여드름
05 다이어트 : 수소수는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
06 피로회복
07 치매 :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08 전립선
09 성기능 개선
10 운동능력 향상
11 체온상승과 면역력 강화
12 숙취해소
13 염증
14 변비
Part 6. 좋은 수소수의 조건
01 좋은 수소수란?
02 수소용존량이 많은 수소수
03 수소용존 시간이 긴 수소수
04 온도변화에도 수소용존량이 높은 수소수
Part 7 수소수 체험사례
Part 8 수소수의 궁금증을 해결하다
01 수소수 관련 Q & A
02 야마모토 이쿠에이, 활성수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03 수소수 권위자 일본 오타교수가 전하는 핵심내용

"삼성전자 3분기 매출 50조·영업익 6조6000억"

3분기 어닝시즌 시작
조선업종, 추가 손실 가능성으로 부진 예상돼

이번주(5~8일) 국내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1950~2000선에서 오르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기업의 3분기 실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소비주 수혜, 국내 블랙프라이데이 기대 효과 등이 지수 상승 요인이다. 반면 미국 금리인상 시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도로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지난주(30일~10월 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38% 상승한 1969.68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국내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로 3일 동안 개장한 가운데 추석 징크스를 딛고 소비관련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사흘 만에 하락해 상승폭을 좁혔다.

◆삼성전자 실적…낮은 기대감에 충격 미미 전망

이번주 주목할 이벤트와 경제지표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발표(7일) ▲미국 8월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7일) ▲미국 9월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8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8일) 등이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50조2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 등으로 매출액은 전년,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6% 정도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영업이익 예상치가 고점 대비 14.5% 하락해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 이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 3분기 어닝시즌에 평균 환율 상승, 저유가 수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증시의 긍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조선 업종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여전하고 제약, 철강, 은행 업종의 부진이 점쳐지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산재해있다.

고 연구원은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판매가 200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하드웨어, 유통, 미디어 업종과 국경절에 따른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관련 소비주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10월 기준금리 인상…가능성 낮지만 우려 여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8월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와 연방준제도(Fed)의 9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100.0)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OECD 전체 선행지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OECD 선행지수가 기준치(100)를 계속 하회하고 있어 부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점이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어 연준의 금리정책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주 폭스바겐 사태와 양적완화 기대감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한 유럽의 ECB 정책회의도 주요 변수다. 특히 지난달 23일 드라기 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QE)를 언급한 바 있어 오늘 8일 열리는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등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9월 코스피 환산주가 1위 삼성물산

732만5000원, 8개월째 1위
SK-네이버-아모레퍼시픽順

국내 주식시장 환산주가 순위에서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물산 환산주가는 732만5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달까지는 제일모직이 7개월 연속 환산주가 1위 자리를 지켰고 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법인으로 사실상 8개월째 1위를 기록한 것..

환산주가는 상장사들의 액면가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모든 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에 맞춰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증권시장에서는 환산주가로 실질적인 황제주를 가린다.

9월 30일 기준 삼성물산에 이어 SK가 61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NAVER(513만원), 아모레퍼시픽(385만원), 한전KPS(302만5000원)가 뒤를 이었다.

6위와 8위는 순위가 바뀌었다. 전달 8위던 삼성SDS가 288만원으로 6위로, 쿠쿠전자는 273만원에서 0.4% 떨어진 272만원으로 8위에 올랐다. 그 외 삼성화재(280만원, 7위), SK텔레콤(263만원, 9위), 롯데칠성(241만2000원, 10위)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환산주가 상위 10위 중 6위와 8위 순위변동을 제외한 모든 순위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삼성물산 환산주가는 전달 대비 17.7% 내려 가장 낙폭이 컸다. 또 SK(-9.6%), 한전KPS(-4.0%), 쿠쿠전자(-0.4%) 등도 하락했다.

반면 삼성SDS가 전월 대비 12.3% 큰 폭 올랐고 NAVER(3.5%), 아모레퍼시픽(1.7%), 삼성화재(3.9%), SK텔레콤(7.8%), 롯데칠성(5.6%)도 주가 상승으로 순위를 유지했다. /김보배 기자

퇴직연금 방문 컨설팅 받으세요

신한금투, 원스톱 시스템 '스마트 프로' 오픈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연금 방문 컨설팅 시스템 '스마트 프로'를 지난 2일 오픈했다.

'스마트 프로'는 증권사 PB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 상품 설명, 상품운용 지시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까지 한 번에 서비스하는 원스톱(One-Stop) 컨설팅 시스템이다.

퇴직연금 전문가가 태블릿 PC에 장착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들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직접 매수·매도를 통한 운용지시까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 재원마련이나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최대 115만5000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도 현장에서 즉시 개설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2015학년도 제 4기
파생상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2015. 10. 14(수) 개강 (3주과정)
장소 키움증권 교육장 / 채널K 방송 온라인수강

키움증권, 파생상품아카데미 4기 수강생 모집 키움증권은 파생상품거래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키움 파생상품아카데미' 4기생 100명을 모집한다. 개강일은 14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주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빌딩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파생상품 이론과 실전 매매에 필요한 HTS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키움증권 제공

MMF, 한달새 10조원 이탈

국내기업 실적 악화
한계기업 우려 커져

단기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몸집이 계속 불어나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지난달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4일한국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MMF 설정액은 지난달 말 101조2373억원으로 한달 새 10조511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과 비교하면 40일간 감소액은 21조원을 넘는다.

작년 말 82조3678억원이던 MMF 설정액은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하된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8월19일 122조6292억원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가 1.6%대까지 떨어지자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MMF로 시중 자금이 몰린 것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MMF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83%로 집계됐다. '동양큰만족신종MMF6'(2.06%), 하나UBS신종MMFS-29C(2.05%), 동양큰만족신종MMF1(2.040.8%), 한화스마트법인MMF1(2.04%) 등은 2%를 웃돈다.

MMF에서 뭉칫돈이 유출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실적 악화로 한계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MF는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인과 기관들이 지난 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필요 자금을 단기 투자처인 MMF에서 빼간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MMF에서 빠져나간 10조원대 자금은 증시나 펀드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6955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국내 펀드에서도 2조7301억원이 빠져나갔다. /차기태 기자 folium@

서울 재건축, 올들어 처음 상승세 멈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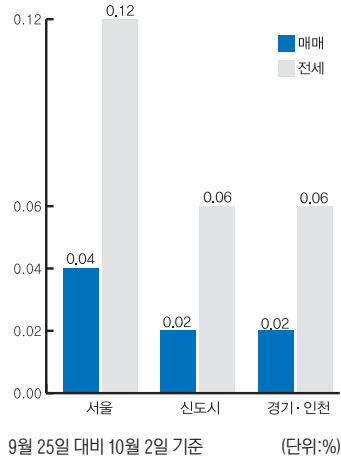
주간분양캘린더

추석 거래공백 매매·전세 주춤 서울 전세, 매매 하한가 육박

추석 직후인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됐다. 연휴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확연히 줄어든데다 거래도 일시적 공백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0.04%, 경기·인천·신도시 각각 0.02%로 전 주에 비해 변동폭이 0.01%~0.05%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변동률이 0%대로 멈추면서 지난 1월 첫 주 반등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멈췄다.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9월 25일 대비 10월 2일 기준 (단위:%)

전세는 서울이 지난주 0.27%에서 0.12%로 오름 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기·인천·신도시가 각각 0.06%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3.3㎡당 1195만원으로 경기 아파트 매매가 3.3㎡당 970만원의 120%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지난 2010년 80%에서 올해 10월 현재 123% 선까지 올라섰다.

경기 지역별로는 과천이 258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남 1569만원, 광명 1336만원 등 3곳을 제외한 경기 28개 지역의 3.3㎡당 매매가가 서울 전세보다 낮은 수준이라 서울 전세민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은 관악이 0.13%로 매매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 0.12% ▲구로·송파·은평 0.10% ▲강동 0.09% 등의 순이다. 전세 세입자의 매매전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가격이 오르다 보니 거래는 잠잠한 편이다.

전세는 매매 하한가에 육박해 거래되고 있다. 서울은 구로가 0.39%로 전세가 상승세가 컸고 ▲영등포 0.36% ▲관악 0.24% ▲마포 0.23% ▲노원 0.16% ▲성동 0.15% ▲강남·강동·은평 0.14% ▲강서 0.13% 등의 순이었다.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1500만~4000만원, 구로동 두산위브는 500만~1000만원이 올랐다. 영등포는 여의도동 일대 미성, 광장 등이 2000만~3000만원씩 일제히 올랐다.

신도시는 ▲판교 0.26% ▲일산 0.13% ▲파주운정 0.11% ▲광교 0.10% 순이었다.

판교는 백현마을1단지푸르지오그랑블 전세금이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보평초 학군인데다 판교역 일대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산은 대화동 성저3단지풍림, 일산동 후곡3단지현대, 후곡4단지금호,한양 등이 50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경기·인천은 고양시가 0.20%로 가장 높았고 안양 0.19% ▲광명 0.14% ▲시흥·파주 0.11% ▲군포 0.10% ▲용인 0.09% ▲성남 0.08% ▲구리 0.06% 순으로 올랐다.

고양은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가 500만~750만원 가량 올랐고 중산동 하늘마을5, 6단지는 2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안양은 호계동 현대홈타운2차, 평촌동 삼성래미안 중소형 면적대의 전세가가 500~2000만원 정도 올랐다. 광명은 하안동 주공10단지 전세금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효성해링턴타워한스에비뉴상업시설.

광명·판교 등 쇼핑 1번지 상권분양 활기

백화점·아울렛 개장 등 유동인구 증가 기대감 광명역세권 완판 행진

대형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웃렛,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쇼핑 1번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광명과 판교 신도시, 하남 등에서 상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광명역세권은 이케아와 롯데쇼핑몰, 코스트코 등이 동시 개점하자 인근 상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공급한 광명역 푸르지오 상가가 단기간 계약 완료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광명역세권에 분양한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단지 상가는 오피스텔과 동시에 분양해 초기에 완판됐다.

판교신도시는 8월 현대백화점 판교점 개장으로 상가 월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분기 판교 상가 월 임대료는 ㎡당 4만8200원으로 1분기에 비해 3.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내역은 0.5%, 서현역은 2.1%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정자역은 3.2% 하락했다. 백화점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되며 상가 분양이 한창이다.

효성은 10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에서 '미사역 효성 해링턴 타워 한스 에비뉴'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연면적 2만7595㎡ 규모로 지상 1~3층에 210실로 구성된다.

상가 위에는 1420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인근에는 3만70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북유럽 스타일 아웃도어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되며 4면이 오픈된 사거리 코너에 있고 2018년 개통예정인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집객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고양 삼송지구 3-2, 3-3블록에서 '원흥역 반도 유스퀘어'를 분양한다. 상가는 연면적 2만7318㎡에 지하 3층~지상 10층 18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 원흥지구에 원흥 이케아 2호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업지역 4블록에서 '은평 뉴타운 꿈에그린 단지상가 53실을 분양한다. 지하1층~지상 1층에 위치하며 상가위에는 아파트 147가구와 오피스텔 304실이 조성된다.

은평뉴타운에는 2016년 완공예정인 롯데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3만3000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져 내년 하반기 문을 연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이 들어선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3만3000㎡ 면적에 조성되는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 상가의 4차와 5차 86실에 대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박상길 기자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후끈' 9년 만에 낙찰가율 100% 돌파

낙찰 25건 중 12건 신건

지난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9년 만에 100%대를 넘어섰다.

4일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대표 이명숙)에 따르면 9월 강남 3구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1.7%를 기록했다. 2006년 12월 101.6%를 기록한 이후 8년 10개월 만이다.

9월 강남 3구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는 45건이 경매에 나왔으며 이 가운데 25건이 낙찰돼 55.6%의 낙찰률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는 8.3명이다.

낙찰가율은 전달인 8월 82.8%보다 18.9%포인트 상승했다.

낙찰된 25건 중에서는 17건이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 이전에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2002년 3~10월, 2006년 11~12월 등 부동산 경기의 상승기로 평가받는 2번의 시점이 전부다.

9월 강남 3구 아파트 경매에서는 유찰없이 바로 낙찰되는 신건 낙찰 사례가 증가해 전체 낙찰건수 25건 중 12건이 신건 낙찰됐다. 또 낙찰가가 110%를 넘거나 며칠 사이에 동일 평형의 동일 단지 아파트가 수천만원 이상 낙찰가가 상승한 사례도 나왔다.

9월 8일 경매에 나온 대치동 쌍용대치아파트 전용면적 162.7㎡ 아파트는 신건에 2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대비 118%인 15억1040만원에 낙찰됐다.

이어 같은 달 24일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1층은 신건에 12명이 몰려 감정가 12억8000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박상길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잠실 롯데월드몰 찾은 영국왕실 근위병 군악대 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영국 근위병 군악대 '콜드스크림 가드 밴드'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롯데월드몰에서는 11일까지 '브리티시 위크' 행사를 열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중 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물산 제공

애경, AK플라자 분당점 매각 검토

매각가 4200억원대 추정

애경그룹(회장 장영신)이 AK플라자 분당점을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 검토 중이다.

세일즈앤리스는 건물을 매각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이다. 애경그룹은 수년 전부터 AK플라자 분당점 건물 매각을 진행했다.

4일 애경그룹에 따르면 유통부문 자회사인 AK에스앤디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와 AK플라자 분당점 매각을 검토 중이다.

AK에스앤디가 부동산펀드에 매각후 재임차해 20년간 장기운영하는 책임임차 조건이다. 매각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4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AK에스앤디가 AK플라자 분당점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원주점은 2012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로점도 지난해 매각해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유통업체도 간편결제 봇물

현대 'H 월렛' 서비스 개시
롯데, 시범 운영 출시 준비
모바일 고정 구매층 확보 총력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3사가 앞 다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오프라인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면서 사용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서비스가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선두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통업체들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4일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카드 전용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H월렛'을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이 스마트폰에 H월렛을 다운 받아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모바일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또 이용내역과 청구내역 조회, 백화점멤버십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적용 등 현대백화점카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대백화점 전국 15개 점포와 현대아울렛 가산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와, e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주차 자동정산, 전자 영수증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3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엘페이(L.pay)'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엘페이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롯데의 통합 마일리지인 엘포인트 적립과 사용 뿐 아니라 롯데 계열 외 다른 신용카드 등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롯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11월부터 롯데백화점 전 지점에서, 12월에는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 점포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신세계는 지난 7월 모바일 결제 서비스 'SGG페이'를 선보였다. SSG페이는 신세계 계열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충전 후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계산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 결제는 서비스 특성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해 사용해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묶어두는 락인(Lock-in)효과가 있다. 유통업체는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를 통해 모바일 고정 구매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생닭 1000원… 프랜차이즈 치킨 2만원

산지 닭값은 떨어졌지만 '국민간식'인 치킨 값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마진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닭(1.6kg) 가격은 2010년 평균 1899원에서 올해 상반기 1627원으로 5년 전보다 14.3%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주로 9~10호 닭을 사용하고 내용량은 평균 724g이어서 실제로 치킨 한 마리에 대한 생닭 값은 1000원 안팎이라고 물가감시센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치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BBQ '레드핫갈릭스'와 BHC의 '순살뿌링클핫'은 1만9900원이고 다른 업체들도 1만8000원 이상의 '고가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치킨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영업 마진 때문이라는 게 물가감시센터의 주장이다.

물가감시센터는 "본사가 높은 이윤을 독점하는 대신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값을 인하한다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는 높은 마진율로 이윤 증대만 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과 적절한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 공판장 17곳서 발암물질 검출

수협(대표 김임권)이 관리하는 공판장과 바다마트 대부분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수협 공판장과 바다마트 19곳 중 1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철거했고 5곳은 매각이 이뤄졌으나 수협이 자진해서 석면 해체한 건물은 없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공판장 6곳 중 하역장과 냉동창고를 제외한 4곳은 경매인과 상인이 모이는 장소다. 4곳 중 3곳(강서·인천·대구)에서 석면이 나왔다.

바다마트는 조사 대상 13곳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건물에는 근로자 쉼터, 소비자 상담실, 일반 매장 등이 있다.

세븐일레븐 '전력 자급자족' 친환경 편의점 오픈

업계 첫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
연 2만9300kW·전기료 23%↓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차세대 에너지 절감 핵심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편의점 '가평자전거테마파크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은 롯데기공, 롯데케미칼, 롯데정보통신과의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융합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기술을 통해 '고효율 냉장장비 실외기'를 도입했다. 이 실외기는 설치 단가는 기존 대비 30% 가량 오르지만 전력

세븐일레븐 가평자전거테마파크점. /세븐일레븐 제공

사용량을 20%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이중 에어커튼 냉장쇼케이스'는 단일 에어커튼을 이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을 10% 정도 줄여준다.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는 설치 투자비는 기존 형광등 대비 3배 가량 높으나 전력 사용량을 4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자체 테스트한 결과기존 점포 대비 연간 약 2만9300kW의 전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전체 전기 요금을 23%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30% 가량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편의점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만큼 미래 편의점 시설 구축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친환경 점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이랜드 SPA브랜드 '스파오' 홍대 인근 메가스토어 오픈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의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스파오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사거리 대로변에 3층 규모 약 1390㎡(420평)의 메가스토어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스파오는 홍대점 개점을 기념해 이날까지 매일 구매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홍대 마이쥬스 1잔을 증정했다. 또 일부 특가 상품을 선보

홍대 매장 전경. /이랜드그룹 제공

이고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21일에는 전속 모델 엑소 팬사인회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막고… 외국인은 밀고…

KT&G, 주총 앞두고 뒤숭숭

檢, 백복인 부사장 비리 재수사
주총서 사장 선임안 승인 불투명
ISS, 찬성 표명… 변수작용 관심

KT&G가 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한 가운데 차기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백복인 부사장(51·사진)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백 부사장이 KT&G 계열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KT&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T&G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민 전 사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협력업체와의 거래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부사장이 2013년 경찰청의 KT&G 수사 당시 핵심증인이었던 용역업체 강모 대표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와 2010년 KT&G 청주연초제조창 공장부지 매입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재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부사장은 민전 사장이 퇴진한 뒤 이뤄진 KT&G 사장 공모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백 부사장은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 출신으로 1993년 입사 후 23년 동안 사내 주요요직을 거쳤다. 7일 주주총회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이 백 부사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 사장의 선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G는 그동안 낙하산 인사 가능성과 정계·관계의 외압 논란 등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이번 사장 공모 과정에서 사장공모 절차를 변경해 외부 인사로까지 문호를 넓히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 부사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정부 또는 관계 인사를 사장에 내정하기 위한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KT&G 내부는 물론 사장추천위원회는 백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미 백 부사장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 부사장 선임안이 주총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주총이 연기되거나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백 부사장의 대표 선임에 대해 찬성의사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경우 ISS 보고서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ISS의 권고가 의결권 행사에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74.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KT&G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약 53% 수준으로 ISS의 찬성 입장 표명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日 정통 코스요리, 가을의 맛 담았다

쉐라톤 인천 호텔 '미야비'
전복·은대구 등 제철 재료
'가을 가이세키 프로모션'

쉐라톤 인천 호텔의 일식당 '미야비(MIYABI)'에서는 가을 향을 가득 담은 일본의 정통 가이세키 정식 '가을 가이세키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가이세키 요리는 일본식 정식 코스요리로 다양한 요리를 작은 그릇에 담아 내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그릇과 메뉴, 장식이 무궁무진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미야비의 가을 가이세키 요리는 팥으로 조린 문어와 전복 술찜, 마늘 향의 새우구이 또는 바닷가재 구이 그리고 은대구 구이와 와규 스테이크 등 다양한 가을 제철 재료를 사용한다.

주방장들의 섬세한 푸드 데커레이션과 함께 본토의 맛을 살린일본 정통 정식이다.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담긴 일본 정통 요리를 25일까지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해 8만원과 12만원이다.

예약 문의 (032) 835-1714~5.

/정은미 기자

국민과일 '감귤', 1인당 연간 14kg 먹는다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과일 소비량 1위 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감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감귤 소비량은 14.3kg로 모든 과일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 범주에는 노지 온주와 하우스 온주 등 일반 감귤뿐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 등도 포함되지만 수입 오렌지는 제외된다.

지난해 감귤에 이어 사과(9.4kg), 포도(6.5kg), 배(5.5kg), 복숭아(4.2kg), 단감(3.7kg) 순으로 소비량이 많았다.

1980년 4.2kg에 그쳤던 1인당 감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6kg으로 정점을 찍고서 2010년 이후에는 12~14kg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과가 줄곧 국내 과일 소비량 1위를 달리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감귤이 사과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사과 소비량은 1980년 10.8kg에서 지난해 9.4kg로 오히려 줄었다. 과일 소비도 1995년 15.8kg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점점 먹기 편한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환경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나 배는 깎아 먹어야 하지만 감귤은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며 "과일 소비 추세가 변하면서 감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 1인당 소비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전체 과실류 소비량은 1980년 22.3kg에서 2014년 66.5kg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과일 소비량 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2.8%에서 2000년대 이후 0.7%로 다소 둔화됐다.

아이니웨딩과 혼수박람 컬래버레이션

메이필드 호텔
10~11일 1600커플 초대
채플·하우스 웨딩 시연

메이필드 호텔은 가을 웨딩 시즌을 맞아 10일과 11일 양일간 오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니웨딩×혼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심 속 특급호텔에서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는 웨딩 준비가 가능하도록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1600커플을 초대했다. 웨딩 관련 브랜드 전시부터 웨딩 상담, 럭셔리 하우스 웨딩 시연 등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박람회 당일 '벨타워 가든'에서는 유러피언 스타일의 종탑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설치되고 화이트톤의 우아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라홀'에서는 아름드리나무숲을 배경으로 격조 높은 채플식 웨딩을 재현해 선보인다.

예비부부를 위한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라홀'에서 친구 또는 연인과 찍은 사진을 개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라페스타 식사권', '영화 관람권',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메이필드 호텔은 웨딩 박람회 기간 동안 메이필드 호텔에서 웨딩을 계약한 고객에 한해 식음료 할인을 비롯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광복 70주년 통일말 대축전
임진각서 통일염원 퍼레이드
한국말산업중앙회

한국말산업중앙회(회장 윤홍근·사진)가 지난 3일 광복 70주년 개천절을 맞아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통일말(馬)대축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올해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사의 슬로건을 '달리자! 통일로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전국민적 축제를 마련했다.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범국민 통일말 출정식에서는 통일말 환영행사가 진행됐다.

또 파주 임진각 본 행사에서는 말 70필이 통일대교를 왕복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말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윤홍근 회장은 "말을 통한 다양한 통일 기원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다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국민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스무 살을 맞이해 내세운 것은 바로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의 만남'이다.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아시아 거장 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다. 대만과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인 허우샤오시엔과 지아장커도 신작을 들고 부산을 찾았다. 세월의 깊이를 더한 작품들로 올해 영화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아시아 거장들, 세월의 깊이를 더하다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부산에 들고 온 영화는 8년 만의 신작인 '자객 섭은낭'이다.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장군의 딸이었으나 여승에게 납치돼 무술을 연마한 자객 섭은낭의 이야기를 그렸다. 무협영화를 표방했지만 '자객 섭은낭'은 액션보다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보다는 자연 풍경이 더 눈에 들어온다. 은유와 함축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의 오묘한 무협영화다.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우샤오시엔

'자객 섭은낭' 허우샤오시엔 감독
"비극·고통도 담을 줄 알아야"

감독은 "그동안 타이페이영화제와 금마장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일하는 바람에 신작 준비가 늦어졌다"고 새 작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밝혔다. 기존 무협영화와는 전혀 다른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무협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직 영화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온 거장의 깊은 철학도 접할 수 있었다. 허우샤오시엔 감독은 "상업영화든 예술영화든 감독이라면 자신이 영화에 무엇을 담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화감독은 지식인의 마음으로 현실에서 피하고 싶지만 알아야 하는 것, 비극과 고통도 영화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영화감독이 갖춰야 할 태도를 밝혔다.

허우샤오시엔 감독

지아장커 감독

지아장커 감독은 '산하고인'을 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그동안 중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온 지아장커 감독은 이번 새 작품에서 1999년과 2014년, 그리고 2025년이라는 세 가지 시간대를 통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스토리를 통해 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을 영화에 담고자 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산하고인' 지아장커 감독
"폭발적 감정 담는 새로운 시도"

그동안 절제된 연출로 현실을 날카롭게 담았던 지아장커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새로운 연출 스타일을 시도했다. 적극적인 음악 활용 등이 그렇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지아장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인 거리에서 인물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클로즈업 등을 통해 감정이 폭발할 때는 폭발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연합뉴스 제공

BIFF 달군 해외 스타들의 영화사랑

틸다 스윈튼

영화제는 감독·배우·스태프·관객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도 해외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영화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영화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영화제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부산을 찾은 해외 스타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틸다 스윈튼
"영화는 동료와의 창의적 작업 봉준호 감독과 차기작 준비도"

하비 케이틀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 방문 이야기·경험 통해 인간적 교류"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출연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선정된 '비거 스플래쉬'를 들고 찾아왔다.

틸다 스윈튼에게 영화는 같은 뜻을 지닌 동료들과 함께 하는 창작 과정이다. 한 번 작업한 감독과는 계속해서 작품을 같이 하는 이유다. '비거 스플래쉬'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도 그동안 꾸준히 같이 작업해온 감독이다. 2009년 '아이 엠 러브'로 부산국제영화제를 같이 찾은 바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만난 틸다 스윈튼은 "루카 감독은 나의 친구"라며 "앞으로도 항상 같이 작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국열차'로 인연을 맺은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고아성에 대한 이야기도 빠트리지 않았다.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는 동료·가족과 같은 감독"이라며 "차기작인 '옥자'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실망시키지 않을 작품이 될 것"이라고 소개다. 또한 "송강호·고아성은 정말 멋진 배우이자 친구"라며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이며 즐거움"이라고 덧붙였다.

하비 케이틀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다. 마틴 스콜세지·리들리 스콧·쿠엔틴 타란티노·웨인 왕·웨스 앤더슨 등 명감독들과 꾸준히 작업하며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월드 시네마 부문 초청작인 '유스'를 들고 찾아왔다. 첫 한국 방문이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하비 케이틀은 이야기와 경험을 통한 인간적인 교류를 강조했다. 그는 "영화를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비 케이틀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것은 내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며 "나이와 상관없이 더 많은 경험과 자각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며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어떤 수식어로 불리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죽기 전 '하비 케이틀'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전화로 이야기해달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남겼다.

/부산=장병호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배우는 감독 손에 있는 하나의 재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는 늘 빠지지 않는 손님들이 있다. 중국 배우 탕웨이(35)도 그중 하나다. 2010년 영화 '만추'로 부산을 처음 찾았던 탕웨이는 이후 개막식 사회와 초청작 게스트 등으로 영화제와 남다른 인연을 이어왔다.

3편의 영화로 BIFF 찾은 탕웨이

스무 살이 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탕웨이를 만날 수 있었다. 벌써 다섯 번째 방문이다. 올해 영화제는 더욱 특별했다. '세 도시 이야기' '화려한 샐러리맨' '몬스터 헌트' 등 무려 3편의 출연 영화가 초청됐기 때문이다. 남편인 김태용 감독도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부부 동반 영화제 참석도 화제였다.

지난 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라운드 인터뷰로 만난 탕웨이는 "부산에 올 때마다 무대인사나 인터뷰 등으로 많은 사람과 만날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의 사랑에 늘 감동한다"고 부산을 다시 찾은 소감을 전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일이 많아서 남편과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부산국제영화제에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5번째 부산 방문… "사랑에 늘 감동"
멜로·뮤지컬·판타지 3색 매력 발산

남편 김태용 감독과 동반 참석 '화제'
믿고 기다리는 사랑의 아름다움 믿어

올해 초청작 중 탕웨이가 메인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은 메이블 청 감독의 '세 도시 이야기'다. 중일전쟁 당시 헤어진 두 남녀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영화다.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성룡의 부모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화제작이다. 탕웨이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했다. 그 시대의 굉장히 낭만적이고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를 느껴보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영화는 디지털 기술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를 무대로 오직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다. 탕웨이는 "마음 속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디지털 기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세 도시 이야기'가 그리는 사랑에 의구심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나게 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에 대한 탕웨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었다.

또 다른 초청작인 '화려한 샐러리맨'은 느와르의 대가로 정평이 난 두기봉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영화다. 탕웨이는 '돈을 많이 벌어 집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인 평범한 현대 여성을 연기했다. 그는 "'세 도시 이야기'의 촬영을 마치고 곧바로 촬영한 작품"이라며 "두기봉 감독은 물론 주윤발·실비아 창 등 대배우와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영화인만큼 노래도 직접 불렀다. 탕웨이는 "놀라운 경험이자 재미있는 작업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화 '몬스터 헌트'(위)와 '세 도시 이야기' 스틸컷.

지난 7월 중국에서 개봉해 역대 중국영화 중 최고의 흥행기록을 달성한 '몬스터 헌트'도 탕웨이의 출연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다음달 정식 개봉 예정이다. 탕웨이는 "우정출연 한 작품으로 등장 분량은 3분 정도"라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장부로 '병맛' 같은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3편의 작품을 들고 영화제를 찾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탕웨이를 필요로 하는 작품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탕웨이는 "배우는 감독 손에 있는 하나의 재료"라며 "그 재료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배우의 일"이라고 배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이 끊임없이 많았다. 다음 도약을 위해서 한 템포 속도를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부산=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타 등장에 해운대가 '들썩'

이정재·유아인·엑소 수호 오픈토크 등 특별한 만남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 동안 해운대는 스타와 팬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올해도 많은 스타들이 해운대에 마련된 야외 행사장을 찾아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난 2일의 주인공은 '암살'의 이정재였다. 그는 이날 오후 '한국영화기자협회와 함께 하는 오픈토크-더 보이는 인터뷰' 행사에 참석해 '암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다.

이정재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고민이 이었다. 염석진은 보면 볼수록 악한 인물이라 관객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염석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연민을 느껴야만 연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영화에 보이지 않는 감정, 대사,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베테랑'으로 영화제에 초청받은 유아인은 3일 같은 오픈토크 행사로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오는 6일이 생일인 그는 이날 깜짝 생일 파티를 갖기도 했다.

유아인은 "대세 배우라는 칭호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연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연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룹 엑소 멤버 수호는 영화 '글로리데이'의 주연 배우로 해운대를 찾았다. 4일 열린 야외무대 인사 행사에서 수호는 "엑소 수호, 배우 김준면이다"라며 본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첫 영화인 만큼 신인 배우의 자세로 몰입해 열심히 촬영했다"며 "지금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배우 이정재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야외 무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텍사스, 아직 먼 지구 우승

LA에인절스에 뼈아픈 역전패
추신수, 5타수 1안타 2타점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 텍사스의 추신수가 6회 1사 만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노리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 경기에서 10-11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이후 펼쳐진 경기에서 서부지구 2위인 휴스턴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6-2로 제압했다. 텍사스의 매직넘버는 이틀째 1에서 멈춰 섰다. 5일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서부지구 우승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만일 최종일에도 텍사스가 패하고 휴스턴이 이기면 양팀은 동률이 돼 지구 우승을 가리기 위한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치른다. 텍사스는 최소 와일드카드를 확보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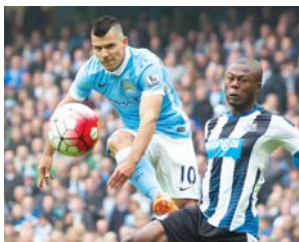
텍사스는 이날 10-6으로 승리를 앞둔 9회 마무리 숀 톨러슨과 구원 로스 올렌도르프의 난조로 5점이나 내주며 역전패했다. 홈 팬 앞에서 4년 만에 지구 우승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쳐 타율 0.275를 기록했다. 타점 2개를 보태 시즌 타점은 82개로 불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세르히오 아궤로 '5골' 원맨쇼

맨시티, 뉴캐슬에 6-1 대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가 3일 밤(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가 혼자 5골을 넣는 원맨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맨시티는 3일 밤(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아궤로의 5골을 앞세워 6-1로 대승을 거뒀다.

2연패를 마감한 맨시티는 6승2패(승점 18점)를 기록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16점)를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선제골은 뉴캐슬이 넣었다. 반격에 나선 맨시티는 전반 42분 아궤로의 헤딩골로 1-1 균형을 맞춘 뒤 전반을 마쳤다.

이어 맨시티는 후반 4분만에 아궤로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어 2-1 역전에 성공했다. 1분 뒤 다시 아궤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3-1을 만들었다.

그리고 3분 뒤 케빈 더 브라위너가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15분과 17분에는 아궤로가 연거푸 뉴캐슬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장병호 기자

TV 하이라이트

누명을 쓴 은수

◆ MBC '화려한 유혹' 오후 10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로 재판에 서게 된 은수(최강희)는 자신과 남편 명호(이재윤)의 무죄를 주장한다. 일주(차예련)는 아버지 석현(정진영)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우(주상욱)라고 말하며 둘 사이를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석현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형우는 석현이 보낸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SBS '육룡이 나르샤' 오후 10시

어린 이방원(유아인)은 아버지 이성계(천호진)에게 회군해야 한다고 간청한다. 아버지와 함께 회군하던 이방원은 우연히 분이(신세경)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 KBS2 '발칙하게 고고' 오후 10시

선생님들의 눈엣가시인 댄스부 '리얼킹'은 어느 날 일어난 '키스사건'으로 인해 우등생들이 모인 응원부 '백호'와 통폐합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아침부터 어린 남동생 앞에서도 아랑곳 않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인 20대 여성이 출연해 부모님의 닭살 행각을 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다 잘될 거야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히든싱어 4 (재) 10:50 디데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두번째 스무살 (재)	05:00 진짜 사랑 시즌1 (재) 06:0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06:55 식신로드 (재) 07:55 마츠리 시리즈 (재) 08:50 영상앨범 산 (재) 09:30 여행의 발견 10:00 Wonderful 일본 여행 (재) 11:00 THE 세계유산 11:25 일본낚시여행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뚝?뚝!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육룡이 나르샤-육룡은 누구인가?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2:05 디데이 (재)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두번째 스무살 (재) 14:30 문제적 남자 (재) 15:50 코미디 빅리그 (재) 17:10 두번째 스무살 (재)	12:00 신수지 WHITE 돗토리 (재) 13:05 루즈벨트 게임 14:10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재) 15:00 해피라이프 (재) 16:05 마츠리 시리즈 (재) 17:00 영상앨범 산 (재) 17:35 여행의 발견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한글날 기획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20 아시아 영화의 힘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발칙하게 고고 (1회)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1회) 23:10 광복70년 기념 아리랑 대축제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육룡이 나르샤 (1회)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회)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아궁이 (재)	18:20 두번째 스무살 (재)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명단공개 (재)	18:05 THE 세계유산 (재) 18:30 일본낚시여행 (재) 19:05 루즈벨트 게임 (재) 20:10 진짜 사랑 시즌1 21:00 여성 룰 22:05 우로보로스 (재) 23:00 형사 110킬로 시즌1 (1회) 24:00 루즈벨트 게임 (재)

생활 영어

What's your point?

A: What's your ideal type of guy?

B: Oh dear. Why are you asking again?

A: Tell me!

B: Beggars can't be choosers...

A: ROFL You're really not going to share?

B: Seriously, **what's your point?**

A: I'm looking for someone to set you up with.

B: Uhmmm… If you say so.

A: So?

B: Tall, dark, well-built, nice butt...

A: Hehe. Would that be all? ;)

B: Of course not. The list goes on. Irresistibly handsome with a cute smile that kills me… filthy rich…

A: Now I get why you're still single. :P

하고 싶은 말이 뭐야?

A: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B: 아이구. 왜 또 물어봐?

A: 말해봐!

B: 가릴 형편이 아니잖아…

A: 빵터짐. 정말 말 안해줄 거야?

B: 진짜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A: 너랑 소개팅시켜 줄 사람 찾고 있거든.

B: 음… 정 그렇다면…

A: 그렇다면?

B: 큰 키, 구릿빛 피부, 단단한 체구, 섹시한 엉덩이에…

A: 헤헤. 그게 다야?

B: 물론 아니지. 더 있지. 살인 미소에 무지무지 잘생긴데다, 돈은 더럽게 많고…

A: 이제야 왜 아직 싱글인지 알겠다. (메롱)

* ROFL : 웃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속어로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의 약어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9					6		8	
	5	6						1
5			8		4			7
7	9						1	4
6			1		2			5
3						7	9	
	2		5					3
		7			1			

	8		6			9		1
	2			8	9			
6					4	5		
		4	9			2		
			4		5			
		6			8	4		
		3	5					2
			8	3			7	
8		5			1		6	

스도쿠 정답

1	8	3	7	2	5	4	6	9
9	7	4	3	1	6	5	8	2
2	5	6	4	8	9	3	7	1
5	3	1	8	9	4	6	2	7
7	9	2	6	5	3	8	1	4
6	4	8	1	7	2	9	3	5
3	1	5	2	4	8	7	9	6
8	2	9	5	6	7	1	4	3
4	6	7	9	3	1	2	5	8

4	8	7	6	5	2	9	3	1
5	2	1	3	8	9	6	4	7
6	3	9	1	7	4	5	2	8
7	5	4	9	1	3	2	8	6
2	9	8	4	6	5	7	1	3
3	1	6	7	2	8	4	5	9
1	6	3	5	4	7	8	9	2
9	4	2	8	3	6	1	7	5
8	7	5	2	9	1	3	6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내년 임용고시 준비 중… 관운이 궁금합니다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합격할 운입니다

iwonder 남자 87년 2월 16일 음력 1시 27분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재미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관운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애정운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처럼 제 나름대로 보시도 하고 봉사활동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종교도 불교라 기도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제 삶이 궁금합니다.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 차 글을 남깁니다. 꼭 수락하여 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월(月)에 장성(將星)의 기운이 있는데 신살(神殺 星)중에 가장 뚜렷한 길성(吉星)의 지위를 갖추지만 대게 양(陽)의 기운에 속해 있는 글자에 강하게 출현됩니다.

2월음(陰)의 기운에 있는 상황에서 87년 토끼띠와 월(卯)의 같은 글자가 겹치는 상황은 범중(犯重)의 상황을 야기하며 불리한 현상이 일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안되기도 하겠으나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사계절이 지나듯 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에 준비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복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우리는 예지력을 갖춘 민족으로 통했습니다. 선조들은 육십갑자를 짚을 줄 알았고 앞날의 길흉을 점쳤습니다. 양반과 농민에 이르기 까지 예외가 없이 육십갑자의 반복 순환체계를 통하여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생활을 했는데 운칠기삼(運七氣三)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조건 중에서 운(運)의 비중이 일곱이라면 자신의 기(氣:자신의 능력)는 삼이라는 것입니다. 기(氣)라는 것은 평소에 꾸준히 연마하고 극대화시켜 놓은 자신의 능력입니다. 말대로 비록 삼의 비중 밖에 안 되는 기(氣)라고 해도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을 믿고 아무것도 안하고 나태해 있어도 잘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운이 있고 기를 살려 노력하면 금상첨화 격이 되는 것이며 운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던 크던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임용에 합격할 수는 있는 운인데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피로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정문제는 정신이 혼란할 수 있으니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함)으로 더욱 내공을 쌓으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5일 (음 8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오래 끌던 일 시원한 해결을 봅니다. **60년생**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 기쁨이 넘칩니다. **72년생** 집을 떠나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 봅니다. **84년생** 귀하는 일 마다 안되니 하늘도 야속합니다.

49년생 용띠에게 도움을 청하면 길합니다. **61년생** 집 늘리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73년생** 매사 막힘이 많습니다. **85년생** 신경성 불안, 초조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50년생 하던 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입니다. **62년생** 애정문제는 호전되나 자식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74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86년생** 집 매매 안되어 이사를 못가게 됩니다.

51년생 직장에서 기쁜 일 생깁니다. **63년생** 공부가 지긋지긋해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75년생** 매사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습니다. **87년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심정 간절 합니다.

52년생 가까운 사람 경계하세요. **64년생**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76년생** 동남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8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집니다.

53년생 사고수가 있습니다. **65년생** 동쪽은 불길합니다. **77년생**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89년생** 즐거운 여행 떠나며 경사스러운 소식 있겠습니다.

54년생 주식 투자한 것이 힘들어집니다. **66년생** 애인과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의 미소를 짓습니다. **78년생** 자식들 공부 문제로 고민이 있겠습니다. **90년생** 금전적으로 쪼들림 당하겠습니다.

55년생 휴직상태의 운이오니 만전을 기하세요. **67년생** 직장 변동수가 예상됩니다. **79년생** 쥐띠 상사에게 잘할수록 길합니다. **91년생** 하던 일이 결실을 주는 호기입니다.

56년생 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 기쁨이 옵니다. **68년생** 이성관계를 조심하세요. **80년생** 사업가는 금전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92년생** 망신 수가 있습니다.

57년생 집안 경사로 웃음꽃이 핍니다. **69년생** 집안간 돈 문제로 크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81년생** 애정 결실에 결혼운이 열립니다. **93년생** 과거 운이 꽃이 핍니다.

58년생 자식의 출생이나 직장인 진급 소식이 전해집니다. **70년생** 무역 관계에서 촉진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82년생** 고생 많으나 빈 손입니다. **94년생** 빚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운입니다.

59년생 특허품에 경사가 있고 재물운은 좋아집니다. **71년생** 종교에 관심기울이면 운이 풀립니다. **83년생** 자식에게 피해를 줍니다. **95년생** 귀인을 만나 취직합니다.

진경산수화에 서양화법 영향?

이석우
Ph.D 겸재정선미술관장
경희대명예교수

겸재 정선은 예술정신에서도 퍽 자유로워 그림의 전개와 진전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변화와 탐구를 모색했음이 드러난다. 오늘 날 그의 높은 위상, 심지어 화성으로까지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것도 그의 이러한 예술정신과 자세에 크게 뿌리 박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살던 당대에서조차 엇갈리기는 했다. 문화적 기호와 트렌드에 따라서 그 선호가 다르고 더구나 당쟁이 극심하던 그의 시대에 당파성이 배제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당대를 함께 살았던 윤두서(1668~1715)가 정선(1676~1759)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주로 소론계 인사들 이하곤(1677~1724), 조구명(1693~1737), 남태응(1687~1740)등이 이들이다. 그 이유를 그림의 문인화적 취격이 윤두서가 더 낫다는 것이고, 겸재가 너무 그림 주문에 많이 응함으로 그 선비적 품격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다.

반면 정선과 교분을 갖고 후원했던 김창흡, 조영석 그리고 소론계 인사들인 김광수, 이춘제 등은 겸재를 더 높이 보고 이병연 같은 이는 겸재와 함께 시화일치사상을 적극 전개하였다.

19세기 전반 무렵에 이르러서 사실성보다는 사의성을 중시했던 예술풍토에서 김정희 등은 오히려 심사정과 윤두서에 더 큰 평점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상황은 바뀐다. 조선의 미술사가들은 서양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고 중국 또는 동아시아적 미론에 따라 왔던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의 맥락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세창(1864-1953)의 '근역서화징'에서의 겸재 평가는 이후 흐름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겸재가 산수에 뛰어났다. 특히 진경을 잘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우리나라 산수화의 종주가 되었고...'

세키노 타다시와 고유섭의 평가가 있었지만 이후 50여 년간 정선에 대한 연구는 잦아든 듯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자기 것을 찾자는 한국학의 부흥과 함께 겸재는 단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화의 쟁점인 자기 것 찾기, 그리고 내재적 발전과 정체성의 근거를 탐구하면서 겸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진경산수화의 발생이 외래의 영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재적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시각이 중시되었다. 최완수 소장은 소중화주의가 명나라를 대신한 조선이 문화국의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과 자기 발견의 풍토가 진경산수를 이루었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산수기행예술풍토가 오히려 겸재 산수의 토대가 되었다는 반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자생적이고 독자적이어야만 하는가 하고 묻고 싶다. 문화는 교류하며 조우하며 그런 과정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 낸다. 외래적 요소의 영향이 있었느냐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수용하면서 우리 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었느냐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겸재가 서양의 화법에 접했으리라는 몇 가지 개연성이 있다. 중국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수용하였지만 조선은 아마 50년 내지 1세기 정도 후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720년 연경에 다녀온 이기지(1690~1722)의 '서양화기'가 한 예이다. 이미 서양화의 중국화가 청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 청으로부터 문물유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숙종조(1675~1720)이고, 이때는 겸재가 활발히 화법을 익히던 시기와도 맞먹는다.

겸재가 관상감 겸 교수로 임명된 것이 1716년 숙종42년이다. 당시 관상감은 천문, 지리, 역수, 측우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한 곳으로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고 공부하였을 것이다. 겸재가 여기에서 서양화를 보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관상감 책임자였던 영의정 최석정이 주관하여 서양화법이 반영된 '곤여만국도'를 화원에게 모사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이는 겸재가 그린 '금강전도'에 그동안 막연한 공간으로 남겨두었던 하늘공간 색을 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거된다.

겸재는 그 외에도 중국의 남종·북종화 등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여 우리 그림, 우리 산수화를 그렸다. 그는 어떤 면에서 국제적인 포용력의 소유자로 중국의 '계자원화전', '당시화보' 등을 모두 참조하면서 독자적인 우리 산수화를 만들어 낸 창조적 도약의 거인이다. 가장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우리 것을 세계적으로 다시 창조해낼 때 가능한 말이다.

삼성본사 딜라이트 체험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길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삼성전자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사옥에 브랜드 체험관 '딜라이트'를 재개관했다.

지난 5월 말부터 3개월간 새롭게 준비한 '딜라이트'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경하는 단계에서 진화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변했다.

덕분에 20여일 남짓 흐른 현재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딜라이트' 입구가 보이는 삼성전자 기자실로 출근하는 날이면 오전부터 체험관에 출입을 위해 줄을 서 있는 긴 대기행렬을 만난다. 중·고등학교 학생 뿐만아니라 외국인 등 IT제품에 관심이 높은 관람객들이 다양했다. 해외 여행시 애플스토어를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실제 재개관 첫날 삼성 딜라이트 방문객은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비율은 60%에 달했다.

또 삼성 딜라이트는 재개관 후 중국 우한시 시장, 터키 시장 시의원 부시장, 레바논 장관, 필리핀 졸리비 그룹, 워싱턴 동물원장, 튀니지 국토부장관, 부탄 농림부장관 등 올 하반기에만(9월12~12월31일까지), 전세계 약 22여 개국 총 86건, 2600명의 해외 주요 거래선과 VIP 방문이 예약됐을 정도다.

중국 CCTV, 이스라엘 유명 예능 방송(Amazing Race Israek), 이태리 주간잡지 L'Espresso 등의 해외 주요 방송, 언론 매체의 취재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노베이션 공사기간이 길었고 재개관에 대해 삼성전자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박수칠만 하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점은 매장 곳곳에 상담원을 배치해 방문객의 소리를 듣는 애플스토어에 비해 '딜라이트'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수백명의 방문객을 일대일로 상담하긴 쉽지 않지만 국내외 방문객들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품 솔루션을 체험하고 삼성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삼성 딜라이트 체험관이 애플스토어를 뛰어넘는 세계의 핫 트렌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社 說

내수회복 범정부기구라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상보다 한산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처럼 내수회복을 위해 마련한 큰 행사인데 지난 주말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의 매장에는 발길이 뜸했고 할인율도 기대 이하였다는 소식이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방문객이 도리어 뚝 끊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은 더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 첫주말이 허전했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내수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내수는 이같은 1회성 행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회복에는 특별한 왕도가 있을 수 없다. 반면 국가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해도 내수가 침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다시 국가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 임금, 금리, 배당, 생산활동, 복지 등 내수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개선 또는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특정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기구라도 한시적으로 설치해 내수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마침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도 금액은 감소했지만 물량은 늘어났다. 막연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럴 때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올바른 처방과 대책을 내린다면 내수회복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수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불량 친환경 식품업체 13곳 적발

장어·새우 등 무항생제 허위 표시

소비자 119

불량재료로 만든 식품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업체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A사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유명 친환경 식품업체 4곳에 장어와 새우를 납품하면서 허위로 '무항생제' 표시한 장어와 새우 제품 29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새우를 납품하기에 앞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다른 샘플로 재검사에 응해 합격 판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매장에는 항생제가 검출된 원래 새우를 납품하는 편법을 썼다.

충북지역의 떡·과자류 제조업체 B사는 작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인 양 시중에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쌀과자를 만들어 유통하는 등 1억1000여만원어치를 생산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의 식품 제조업체 C사는 201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다슬기 음료 1400만원어치를 만들어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길게는 2년6개월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친환경 식품 전문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허위 인증표시를 하거나 불량 원료를 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올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전국 50여개 업체를 상대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